

세계연합신문
모바일 보기

제 1272 호 (2023년 9월 12일 화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김정은, 열차로 평양 떠나 러시아로 이동 중인 듯”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7월 27일 '전승절(6·25전쟁 정전협정기념일) 70주년 행사 참석차 방북한 러시아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군사 대표단을 위해 연회를 마련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연회장 입구 양옆에 김정은·푸틴 대형 초상화가 걸려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텁승한 것으로 보이는 열차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향해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12일이나 13일 열릴 수 있는 관측이 나오지만, 14일 이후 별도의 장소에서 개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11일 "김정은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열차가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 중인 것으로 정보당국에서 파

악한 것으로 안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김정은이 평양을 떠나서 (러시아로) 이동 중인 것 같다"고 확인했다. 열차는 지난 10일 오후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이날 러시아 국방연방관구 기관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이 "가까운 시일 내 이 지역을 방문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교도통신도 러시아 당국 소식통

발로 "김정은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 열차가 러시아를 향해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전했다.

김정은과 푸틴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고 있는 동방경제포럼(EEF) 등을 계기로 이르면 오는 12일 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두 사람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날 경우 2019년 4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4년5개월 만에 같은 도시에서 재회하게 된다.

앞서 국방부는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밝혔다. 전날 국방부 대변인은 "김정은이 러시아 방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만약에 방문하게 되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은 갖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은 EEF에서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러시아 매체가 이날 보도했다.

이에 김정은이 EEF에는 참석하지 않고 푸틴 대통령과 별도 장소에서 만나거나 오는 13일까지인 EEF 기간 이후에 회담 할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김정은의 방러와 북러 정상회담은 미국 뉴욕타임스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김정은이 이

달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을 검토 중이라 고 보도하면서 가시화했다.

미 백악관도 이 보도와 관련해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협상이 적극적으로 전진되고 있다"며 김정은이 러시아에서 "정상급 외교 접촉"을 기대한다고 확인함으로써 북러 정상의 초점이 무기 거래에 맞춰졌음을 시사했다.

김정은이 러시아를 찾을 경우 EEF가 가장 유력한 회담 접선 장소로 여겨졌으나 북리는 지난 10일 EEF가 시작된 뒤에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서방 매체 보도로 동선이 노출된 데 따

형 잠수함을 지난 8일 공개하고, 정권 수립 75주년을 맞은 지난 9일 '9·9절'에 중국 대표단을 초청해 열병식과 축하연 등 각종 행사를 개최했다.

김정은의 열차는 도발적 무력 과시와 9·9절 중요 행사가 마무리된 뒤 북동쪽 국경을 향해 전격 출발했다.

회담 성사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김정은의 열차가 러시아로 향한 만큼 국제사회 '외톨이들'인 김정은과 푸틴이 뭉치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동북아와 글로벌 차원의 신생전 기류는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안보리에 의해 금지된 북한과의 무기 거래에 뛰어들 경우 스스로 안보리를 무력화하는 동시에 사실상 서방 전체를 상대로 흘로 치러 온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어갈 포탄 등을 확보하게 된다.

/ 김윤호 기자

이재명, 12일 사흘 만에 재출석…檢, 대북송금 조사 마무리 주력

"오전에 오라 했는데 오후에 일방 출석"…조사시간 부족해 압축 질문할 듯



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조사는 조서 열람을 제외하면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해 오후 6시 40분에 종료됐다. 20분간 3차례 휴식한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조사는 7시간 정도 이뤄진 셈이다.

첫 조사에서 검찰이 준비한 질문의 절반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두 번째 소환조사는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오전 10시에 재출석할 것으로 통보했는데, 이 대표 측이 오후 1시 30분에 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전혀 협조가 되지 않아 내일 얼마나 만큼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남은 조사 내용은 대북송금 의혹 중 경기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대납과 검찰 수사와 재판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사법 방해 의혹, 김성태 전 쌍방을 그룹 회장의 쪽개기 후원금 의혹 등이다.

/ 송원기 기자

핵심 질문만 추려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2차 조사는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는 것은 물론 지난 1차 조사에서 이 대표가 그동안의 검찰 조사 때와는 달리 길게 답변하면서 예상보다 조사가 지연된 것을 고려해 더욱 합리적으로 질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차 조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 시간이 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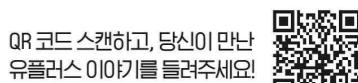
LGU+

#파트너사이야기 #유독1주년 #새로운 친구발견



“한정된 고객에서 벗어나 시장을 넓게 보는 안목이 생겼어요!

QR 코드 스캔하고, 당신이 만난 유플러스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기준에도 유아 흄스클링 키트 정기구독 모델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독과의 제휴는 새롭고 획기적인 시도에 도전해보는

좋은 경험이 되었어요.

저희는 이미 기입한 한정된 고객만을 위한 접근밖에 할 수 없었는데,

유독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키즈가구 타켓 마케팅도 해볼 수 있었어요.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함께 만들어 주셔서 감사했어요.

유독이 저희에게 더 넓은 세계를 보여준 셈이죠~

'U+ 파트너십 카드 정세경 대표님'

이런 생각, 정세경의 WHY NOT?

유플러스 유독

러 "한국, 우크라에 무기 공급하면 러시아와 관계 붕괴" 경고

러시아가 한국에 "우크라이나에 직간접적으로 무기와 군사 장비를 공급하는 성급한 결정을 하면 양국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타斯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러시아 외무부 제1아주국장은 11일(현지시간)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EEF) 행사에서 타스 통신과 인터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공급하지 않고 경제·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여러 경로로 러시아에 이런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한국-미국 탄약 거래에 관한 서방 언론 보도가 현실과 다르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한국의 접근 방식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노비예프 국장은 "우크라이나 위기는 러시아와 한국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한국은 러시아에 '전략적 패배'를 가하기 위해 대리전의 수단으로

/ 강희성 기자

신학림 “김만배 인터뷰 전엔 화천대유 안 가…검찰의 조작 시도”

압수물 포렌식 참관차 검찰 출석…구속영장 청구 전망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기자회견

수수 과정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신씨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데다, 진술이 엇갈리는 공범 김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 말 맞추기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씨는 김씨와 공모해 2021년 9월 15일 당시 국민의힘 대권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부산자축은행 수사 당시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한 뒤,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 대가로 김씨로부터 1억 6천 5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신씨가 보도 전후로 김씨와 긴밀히 연락한 정황으로 미뤄 “거의 20년

만에 만나 사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라는 김씨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본다.

검찰은 김씨가 2021년 3월 께부터 대장

동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언론재단을 만들어 신학림을 이사장에 앉히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같은 해 여름께 신씨가 화천대유 사무실도 몇 차례 다녀갔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자신이 받은 1억 6천 500만 원이 책 3권을 판 값이라고 주장하지만, 김씨는 판권을 산 것이라고 엇갈린 진술을 내놓은 상태다. 또 신씨는 책 판매 시점을 인터뷰 이후라고 말했지만, 실제 도서 판매 계약서는 2021년 3월 1일자로 작성됐다. 검찰은 허위 인터뷰에 대한 대가성을 숨기기 위한 목적이라고 의심한다.

검찰은 신씨의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 등 과거 이력 등을 바탕으로 ‘배후 세력’까지 살펴보고 있다. 신씨는 8 일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친 뒤 민주당 측과 인터뷰 사이 연관성을 묻는 말에 “가능성은 제로”라고 일축했다. / 박현욱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경직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제도 전면 개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경직된 방

송사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전면 개선해 방송사가 콘텐츠 경쟁력과 서비스 혁신에 더 집중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에서 “미디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혁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통적 미디어에 맞춰져 있던 규제 체계를 신구 미디어가 동반 성장할 규제 체계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21년에만 콘텐츠 수출 액이 124억 달러를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넘어서는 등 비약적으로 성장해왔고 글로벌 유통 플랫폼에서 가장 주목받는 서비스가 됐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물론 아직 안주하기는 이르다. 최근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하면서 미디어 생태계 전반에 걸쳐 경쟁이 치열해졌고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지속해 국민

의 소비 여력이 감소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어떤 난관이 있어서 한국은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적인 역량이 온전히 발휘될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국내 콘텐츠 산업이 거대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콘텐츠 공급처 역할을 넘어서서 큰 폭으로 성장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미디어 콘텐츠의 글로벌 유통과 국내 OTT 플랫폼의 해외 진출 지원, 민관 콘텐츠 펍드 확대, 제작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수상작들에 대해서는 “사회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양질의 방송 콘텐츠들이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 최형찬 기자

해군 “홍법도함 합명 의견수렴 필요” 현재로선 변경 검토 안해”

해군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잠수 함 홍법도함의 합명 변경 움직임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도영 해군 서울공보팀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9일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역대 해군참모총장 정책자문

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장 팀장은 “현재 해군이 홍법도함 합명 변경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며 “대신 현재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것으로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해군이 지난달 28일 “현재 해군은 홍법도함 합명 제정 변경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입장에서 다소 결이 달라진 것이다.

합명 변경을 검토해보라고 국방부를 통해 지침이 내려온 적 있느냐 질문에는 “따로 그런 지침은 없었다”고 답했다.

최근 홍법도함 장군의 소련 공산당 활동 이력을 이유로 육군사관학교 내 홍 장군 흉상 이전이 결정되자 여권과 정부·군 일

각에서는 홍법도함의 합명도 변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데수 국무총리는 지난 달 31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군함을 상징하는 이름을 공산당원이었던 사람으로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지난 4일 국회 답변에서 “홍법도함 명칭에 대해서는 (변경)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남성윤 기자

대전교사 가해 학부모 폭로 계정 논란…하루새 팔로워 7천여명

누리꾼들 옹호 “가해자 발붙이고 살 수 없게 정의 구현해야”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의 신상을 폭로하는 누리소통망(SNS) 계정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괴롭힘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과 확인되지 않은 게시글로 인해 2차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1일 SNS 인스타그램의 한 계정에는 ‘24년 차 여교사를 살살하게 만든 살인자와 그 자식들의 얼굴과 사돈의 팔촌까지 공개합니다’라는 소개 글이 적혀 있었다. 전날 생성된 이 계정에는 대전 교사 사망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대전지역 학부모 가족의 얼굴 사진과 함께 전화번호, 주소, 직업, 사업장을 표시한 게시물 40여 건이 등록됐다.

계정 운영자는 “혹자는 선을 넘는다 고 할 수 있지만 저들 때문에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다”며 “엄마는 딸을 잃었고 두 아이는 엄마를 떠나보내며 한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법으로 그들의 잘못을 일깨워주고 싶다”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뿌리 뽑고 싶다”고 덧붙였다.

운영자는 글을 내리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일부 누리꾼의 메시지를 공

개하며 “해볼 테면 해봐라 나는 만 10 세 족벌소년”이라고 나이를 공개하기도 했다. 계정은 하루 만에 7천 150명이 넘는 팔로워가 생기며 폭발적인 반응과 지지를 얻고 있다. 이들은 “용기 있고 멋있다”, “경찰도 못 하는 걸 10세 소년이 하네”, “무슨 선을 넘어도? 이게 정의 구현이죠”,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 편이에요. 이렇게 함께 싸워주셔서 감사하다. 응원하겠다” 등의 댓글을 올리며 호응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공개 수위가 너무 지나치다는 반응과 함께 관련 없는 학부모 역시 가해자로 지목되는 2차 피해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이 계정에 가해자로 지목된 한 체육관 관장의 지인은 “관장님은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아니다”라며 “확실치 않은 내용으로 억울하게 당하는 분들이 없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글을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해명하기도 했다.

전문가들 역시 온라인을 통해 얻은 정보는 사실확인이 어려워 무분별한 확산은 무고한 피해자를 낼 수 있다 고 우려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현상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서 나아가 나쁜 사람을 응징하겠다는 동기를 설정하고 직접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용기 있는 시민으로 스스로 나서 소위 흥길동이 된 셈이라고 말했다.

/ 김유정 기자

의왕 상수도 공사현장서 근로자 2명 토사에 매몰돼 사망

안양천 정비사업 과정서 발생

11일 오전 10시 48분께 경기 의왕시 고천동 한 상수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안양천 정비사업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2m 50cm 깊이로 파놓은 구덩이에 들어가 노후화된 상수도관 교체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당시 구덩이 인근에 쌓여있던 흙더미가 갑자기 쏟아지면서 상수도관을 응접하던 70대 A씨와 30대 B씨 등 2명이 매몰됐다.

공사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 당국은 오전 11시 1분 B씨를, 오전 11시 29분 A씨를 각각 심정지 상태로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와 B씨는 이송된 병원에서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 흙구덩이 근처에 토사가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지지대를 설치해야 하는데 현장에선 이 같은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말했다.

해당 공사는 의왕시가 원청을 맡았으며, A씨와 B씨는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미만이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 곽진욱 기자

SAMSUNG

Galaxy Z Flip5

samsung.com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visitbusan.go.kr](#)을 참조하세요

이재명 “국방장관 탄핵 추진…‘해임요구 거부’尹, 국민에 항명”

채상병 사건에 “장관 해임하지 않는 건 ‘수사외압 대통령 지시’ 스스로 증명한 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11일째인 10일 국회 앞 단식 농성 현막에 앉아 있다. 원쪽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해병대 체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식 12일째인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며 “국민의 명령에 항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이 장관이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은 건 수사 외압이 대통령 지시였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장관 탄핵이 ‘안보 공백’이라며 또다시 국민 겁박에만 앞장선다”며 “진실마저 은폐하는 장관을 감싸는 게 집권여당이 할 도리니”고 반문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탄핵을 시작으로, 특검을 통해 이번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국민이 바라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현 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은 지난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 김석준 기자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 “오늘 오염수 1차 방류 종료 2차 개시 시점은 미정”

정부는 11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오늘 이송 설비 내부의 잔류 오염수 세정 작업을 마치면 최종적으로 1차 방류분 방출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오염수 이송펌프 작동이 정지됐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장은 “지난달 24일 방류를 시작한 후 총 7천763㎥(776만3천L)가 방류됐고 여기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총 1조2천440 억 베크렐(Bq)이었다”며 “긴급차단밸브 작동이나 수동정지 등 이상 상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방류 기간 해수배관해더와 원전 부근 10km 이내 해역 14개 정점에서 채취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삼중수소 농도는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2차 방류 개시 시점은 미정

김기현, 송철호·황운하 ‘징역형 구형’에 “선거공작은 강도질”

“만감이 교차…‘최악 선거공작’에 구형 가벼운 것 같아 아쉽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1일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6년과 5년을 각각 구형한 데 대해 “착잡한 만감이 교차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권력과 언론이 손발을 맞춰 저 김기현에게 집단테러를 가했지만, 허허벌판에서 맨손으로 그저 맞기만 해야 했던 참혹한 기억이 새삼 되살아 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울산시장 출신인 김 대표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피해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돋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고,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이 청와대로부터 김 대표 관련 비위 정보를 넘겨받은 ‘하명 수사’를 한 결과 김 대표가 낙선했다는 게 의혹의 골짜다.

김 대표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3·15 부정선거와 다름없는 대한민국 최악의 선거 공작임에도 기울어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의 3년 8개월간 지

연된 재판 뒷인지 구형이 가벼운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뿌리 깊은 민주당의 선거 공작 DNA를 척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번 의혹과 별개로 지난해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응원하려고 ‘대장동 허위 인터뷰’가 보도됐다는 의혹을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일급 살인죄”, “극형에 처해지는 범죄”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김 대표는 페이스북에 “선거공작은 민



의를 훔치는 강도질이다. 권력을 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조직해 민심을 어지럽히는 국정농단”이라고 적었다.

/ 이성근 기자

이재명에 “단식마저도 방탄으로 이용…여의도 반칙왕”

“검조사 비협조, 영장청구 지연 꼼수…수사방해용 단식 중단해야”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주말 ‘방방을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지연시키려는 꼼수”라며 맹비난했다.

12일째로 접어든 이 대표 단식에 대해서도 사법 리스크 ‘방탄’ 목적이라고 비판하며 수사 방해용 단식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한 이 대표는 조사에 자신의 진술이 누락됐다고 억지 부리며 서명 날인조차 하지 않는 등 시종일관 비협조적으로 조사에 응했다고 한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지연시키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또 이 대표의 영상 녹화 거부에 대해 “애초부터 조사 때 고립됨을 당했다는 트집을 잡아 수사 진행을 방해하려는 전략을 세운 걸로 보인다”며 “조사를 받고 돌

아온 이 대표는 국민 보란 듯 자리에 누웠고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

안을 ‘정치 검찰의 정치 수사’라 규정했는

데이쯤 되면 불체포특권 포기 번복을 위한 명분쌓기 말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사에 앞서 단식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민주주의 코스프레로 부끄러운 혐의를 포장하며 소속 의원들로 하여금 사법 시스템 모욕을 주는 게 이 대표가 약속한 당당한 태도라면 국민들의 이해와는 그 의미가 한참 다른 것 같다”며 “이 대표는 죄의 유무가 여론이 아닌 증거와 법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는 명료한 사실을 기억하고 수사 방해용 단식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이 대표의 진술 조서 날인 거부에 대해 “이 대표의 뜬금없는 단식에는 다 계획이 있었다. 검찰의 조사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꼼수가 등장한 셈”이라며 “기상천외한 사법 방탄 기법들이 난무하는 모습에 웬만한 범죄 피의자들도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을 위해 자신의 건강마저 내려놓는 마지막 정치 수단으로 여겨져 왔던 단식마저도 사법 리스크 회피를 위한

본인의 방탄으로 이용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나”라며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평계 삼아 검찰 수사를 끝끝내 회피하는 이 대표 모습을 보니 ‘여의도 반칙왕’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고 비꼬았다.

강대식 최고위원은 “피의자 이 대표의 태도는 법의 사각지대 안을 찾아 해매는 테크니션 법조인 그 자체였다. 검찰 수사도 피의자 임의로 중단하고 증거가 없다고 항변하며 조서에도 서명하지 않는 등 벼짓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의 특권, 아당 대표의 지위를 악용한 황제 수사”라고 비판했다.

국회부의장인 정우택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진술 조서 서명 거부는 검찰 조사 자체를 무효화시킨 것으로 피의자 방어권을 초과한 법치 농락이고, 느닷없는 단식과 조서 서명 거부는 수사 방해와 재판 시간 끌기용 꼼수”라며 “단식을 중단하고 약속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검찰 수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 이성준 기자

정의당 강원, 도 교육청에 ‘노란버스’ 논란 대응책 마련 촉구

정의당 강원도당은 현장체험학습 ‘노란버스’ 논란과 관련해 강원도교육청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강원은 11일 “안전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이고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수학여행의 추억 역시 중요하다”며 “정부는 학생들이 안전함 속에서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사와 학부모가 마음 편히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어 “인천교육청 등 지자체 교육청들이 노란버스 논란과 관련해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내는 반면 강원도교육청은 이렇다 할 입장이 없다”며 “도 교육청은 일반전세버스로 운영한 현

장 체험학습과 관련한 법적 책임의 주체로 나설 것은 물론 이동 시 별도의 안전대책을 강구해 적용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적인 상황인 만큼 국회의 입법과 법령해석, 관계기관의 논의를 지켜보고 선생님들께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른 시도 교육청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어린이 수학여행 차량으로 전세버스 대신 전체가 노란색으로 칠해진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민강준 기자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신한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BUSAN, KOREA

player 모집

너답게 다 플레이 해

신한 p_{play}

빠른 걸제하는
성격 급인 플레이어

한 눈에 자산관리하는
관리가 필요한 플레이어

컨테츠 추천 받는
관심사 편식 플레이어

신분증 업데이트, 즐거워서까지
가볍게 사는 플레이어

신한Pay를 기반으로 편리한 금융 서비스와 다양한 라이프 콘텐츠 등
마이데이터 시대를 함께 알 신한카드의 대표적인 종합생활금융 플랫폼

준법감사 실무자 제20230418-Cprn=001호(2023.04.18~2024.04.17)

Lead by 신한카드

한문일 무신사 대표, '어린이집 백지화' 논란 관련 공식 사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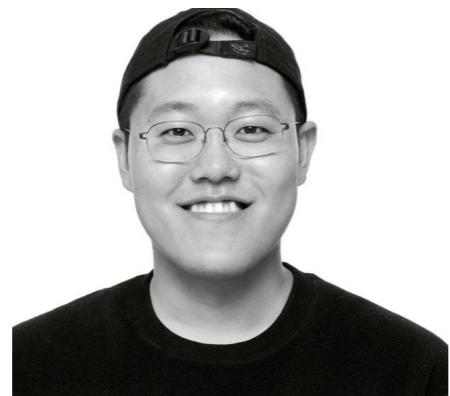
전 직원에 이메일…위탁 보육 실시·재택근무도 유지키로

한문일 무신사 대표는 최근 어린이집 설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과했다.

한 대표는 11일 오전 이메일을 통해 “회사 경영진을 대신해서 불필요한 우려를 만든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듯이 이번 일을 슬기롭게 해결해 무신사 임직원들이 다시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무신사는 앞서 근무제도 변경과 관련 한 온라인 미팅에서 최영준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해 ‘별



무신사 한문일 대표

금을 내는 것이 더 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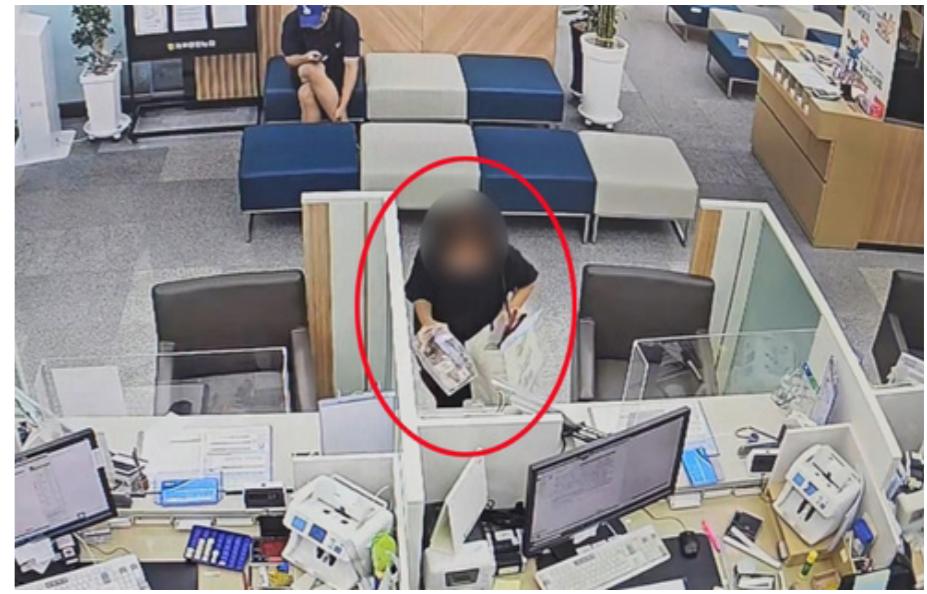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직장 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으면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맺고 근로자의 자녀 보육을 지원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무신사는 현재 직원이 1천500여명이며 이 가운데 여성 직원 비율이 55%로 현행법상 어린이집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서울 성수동에 건립 중인 신사옥에 어린이집을 만들기로 했지만, 실수요자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신사는 이와 관련해 오는 18일부터

위탁 보육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찾아 실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재택근무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도 일단 현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되, 경제 상황과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근무 형태를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오전 4시간 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얼리 프라이데이’제도도 그대로 운용한다.

한 대표는 “임직원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 발생한 이번 사안의 심각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임직원의 생각을 더 적극적으로 듣겠다”고 말했다. / 곽도훈 기자



은행 창구 위에 있는 불우이웃돕기 모금함을 쇼핑백에 담고 있는 피의자

“기초생활수급 혜택 끊겨서” 불우이웃 모금함 통째로 훔쳐

은행을 돌며 불우이웃돕기 모금함을

훔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제주지역 농협은행 3개소에서 직원이 자리를 비우거나 바쁜 사이 창구 등에 놓여있는 불우이웃돕기 모금함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미리 준비해간 쇼핑백에 모금함

을 통째로 담아 갔다.

그가 훔친 불우이웃돕기 모금함에는 약 20만원이 담겨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5일 또다시 범행을 위해 농협을 찾았다가 이를 알아본 직원에게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이 끊겨 식비 등 생활비가 없어 훔쳤다”고 진술했다.

/ 노건우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1년 유족 “무기징역 확정해달라”



신당역 살인범 전주환

고받았다. 2심은 지난 7월11일 두 사건을 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유족은 피해자가 근무했던 서울교통공사와 전주환을 상대로 각각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민 변호사는 “전주환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해자의 생전 뜻이었기에 유족이 그 뜻을 이어 진행했다. 공사에 대해서는 피해자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사용자로서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결로 공사의 법률상 책임이 분명해진다면 피해자와 함께 근무했던 직장 동료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공사 임사 동기인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앞서 같은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백 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이 구형되자 선고 전날 피해자를 살해했다. / 윤형민 기자

‘압구정 롤스로이스’ 마약 연루 병원 10여곳 압수수색

경찰이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모(28·구속기소)씨의 약물 오·남용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병·의원 10여 곳을 수사 중이다.

신씨는 지난달 2일 오후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신씨가 마약류를 처방받았거나 신씨의 마약 혐의에 연루돼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병·의원은 현재까지 10곳을 넘는다.

신씨는 사고 당일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받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간이시약 검사에서 또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성분도 검출됐다.

경찰은 병·의원들이 신씨 주장대로 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처방·투약했는지, 의료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처방한 것은 아닌지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신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의원 3곳을 압수했다. / 박종호 기자



수색하며 마약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압구정 교통사고 피해자 측도 지난 2월부터 사고 당일까지 신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의사들을 마약류 관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신씨는 이밖에 가상자산 관련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받고 있다. 경찰은 신씨를 포함한 피고소인 4명을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신씨 측이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고를 소재로 방송해온 유튜버 카라풀라에게 영상을 내리라고 협박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유튜버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력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신 부패가 심해 정확한 사망 시기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주 빌라에서 아들 남겨두고 숨진

40대 여성 사인은 ‘동맥경화’

전북 전주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40대 여성의 사망 원인이 ‘동맥경화’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이 나왔다.

11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지난 주말 A(41)씨 시신을 부검해 나온 임정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A씨 몸에 별다른 외상이 없는 점으로 미뤄 혈관이 막힌 게 직접적 사망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했다.

시신에서는 담석도 발견됐는데 이 때 문에 생전에도 극심한 통증이 있었을 것으로 국과수는 추정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 사망 원인을 내인사(內因死)로 결론 내고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외력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신 부패가 심해 정확한 사망 시기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9시 55분께 “세입자가 보이지 않고 개 짖는 소리가 난다”는 집주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원에 의해 발견됐다.

여성의 곁에는 3~4살로 추정되는 그의 아들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아들은 수일간 음식물을 먹지 못 해 쇠약한 상태였으나 병원 치료를 통해 의식을 되찾았다.

아들은 출생 신고가 돼 있지 않아 정확한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주인은 시신 발견 닷새 전에 여성이 빌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성의 별다른 직업이 없는 데다가, 전기·가스비와 건강보험료, 집세 등을 체납한 점으로 미뤄 장기간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고 있다.

/ 장순철 기자

I Dream 로봇친구

“엄마~ 로봇친구가 생겼어요!”

지민이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KDB산업은행이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여는 KEY가 되겠습니다

KDB산업은행

월 6만5천원에 서울 대중교통 무제한이용…기후동행카드 첫선

지하철·버스·따릉이 모두…내년 1~5월 시범운영 후 하반기 본격시행

월 6만5천원을 내면 서울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까지 모두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교통카드가 처음 나온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Climate Card)를 내년 1~5월 시범 판매하고 보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6만5천원으로 구매한 후에 한 달 동안 서울을 권역 내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만 이용 가능했던 기존의 정기권에서 범위가 확장됐으며 이용 횟수 제한, 사후 환급 과정 등이 필요한 다른 교통패스와도 차별화된다.

실물 카드뿐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실물 카드는 최초 3천 원으로 카드를 구매한 후 매월 6만5천원을 충전해서 쓰면 된다. 서울 시내에서 타고 내리는 지하철 1~9호선을 비롯해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신림선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단, 기본요금이 다른 신분당선은 제외된다.

서울에서 승차해 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지만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승차할 때는 쓸 수 없다.

버스의 경우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경기·인천 등 타지역 버스나 기본요금이 상이한 광역버스는 서울 지역 내라도 사용이 불가하다. 서울과 타지역 버스를 구분하는 기

준은 '노선 면허'를 얻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 각 버스 노선번호를 검색하면 해당하는 면허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1시간 이용권'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향후 한강 리버버스 등 새롭게 추가되는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승용차 이용이 늘어나며 줄어든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사람들이 통행할 때 하루 중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분포 비율)을 끌어올려 기후위기 대응의 단초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서울 시내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 중 수송 분야 온실가스가 17%(약 763만t)를 차지해 이를 줄이려면 승용차 이용을 대중교통 수요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2021년 기준 서울의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은 52.9%로 2018년 65.1%보다 줄었다. 반면에 승용차 수단분담률은 같은 기간 24.5%에서 38.0%로 늘었다.

특히 최근 물가·에너지 비용이 큰 폭으로 오른 데다 버스 요금에 이어 내달 지하철 요금 인상도 예정돼 시민이 체감하는 가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내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시는 종사자 100인 이상 기업에서 기후동행카드를 구매해 임직원에게 배부하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송원기 기자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G마 카드 미사이 하끼 이르어내'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시동, 12일 전문가 토론회 개최



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도와 시군 특례 발굴 담당자가 참석해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도는 조만간 추가 특례 발굴 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중으로 3차 개정을 위한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상영 특별자치주진단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달성할 수 있는 양질의 특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방향성 정립이 필수적"이라며 "분야별 전문가, 도와 시군 담당자들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향후 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강원특별법 제정 당시 23개에 불과했던 법 조항을 2차례 개정을 통해 84개로 늘렸다.

그러나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 적지 않은 점과 예산 지원이 명시화되지 않은 점, 교육 특구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 조항이 빠져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 신재일 기자

용인시 첫 달빛어린이병원 25일부터 운영…도내 첫 종합병원



경기 용인시는 강남병원이 관내 첫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돼 오는 2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경증 소아 환자가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평일 심야나 휴일에도 운영하는 공공 어린이병원으로, 시도지사가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지역 내 병의원 중에서 선정해 지정한다.

지금까지 도내에서 지정된 달빛어린이 병원 18곳 가운데 의원급이 아닌 종합병

원급 의료기관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남병원은 오는 25일부터 2025년 9월 24일까지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처방 약은 강남병원 인근 강남플러스 약국, 태평양약국, 셀메드주오약국 등 3곳이 요일별로 조제를 맡기로 했다. 용인 관내 소아·청소년은 19만여명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됨에 따라 관내 소아·청소년 경증 환자뿐 아니라 인접 지역 해당 연령 환자도 응급실이 아닌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소아·청소년 환자가 분산됨에 따라 지역 의료기관 응급실의 혼잡도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 권민숙 기자



**더 할수록
더+해지는
더 나은 내일**

금융 사각지대에 관심을 더하고
편리한 금융이 되고자 혁신을 더하고
고객 일상이 행복하도록 안심을 더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더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한화손해보험의 +는 계속됩니다

삼척시,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 힘 보탠다



삼척시는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참여 봄 조성 및 홍보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단체, 출향인사 등 총 44개 단체 3만5천 여명에게 산림엑스포 관람·견학 등을 독려하기로 했다.

시청 직원의 견문을 넓혀주고자 입장권 900여장을 구매해 현장 견학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초·중·고교 학생 600여명은 산림엑스포 행사 및 체험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산림엑스포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31일간 고성군에서 열린다.

시 관계자는 "산림의 발전 방향 모색에 도움을 주는 국제적인 행사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되는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원종현 기자

|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화상창구 서비스 | 생명다양성·환경 보호를 위한 임직원 활동 참여

| 모두의 안전을 위한 위기탈출 안전교육 활동 | 동반성장을 위한 기업지배구조현장 공표

한화손해보험

“회의 후엔 물회, 수요일엔 수산물”…울진군 소비 촉진 안간힘

경북 울진군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부진에 대응해 소비 촉진에 나섰다.

울진군은 11일 죽변면 죽변수협에서 간부 공무원이 참여하는 ‘수산물 월요 미식회’를 열었다.

수산물 월요 미식회의는 매주 월요일에 군청에서 하던 간부회의의 장소와 시간을 변경해 현장에서 회의한 뒤 지역 수산물을 활용한 점심을 먹는 행사다.

이날 군 간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죽변 수협, 수산자생단체장 등은 회의를 마치고 물회, 회덮밥 등 수산물로 이뤄진 식사를 하며 어업인과 상인을 격려했다.



군은 18일에는 후포면에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현장 간부회의를 열 계획

이다. 이와 함께 군은 매주 수요일은 수산물 먹는 날로 정해 울진군 공무원 및 공기

관 직원에게 수산물을 소비하도록 권장한다. 22일부터 3일간 열리는 제33회 경북 도민생활체육 대축전 때는 울진 수산물을 홍보하거나 무료 시식회를 마련한다.

군은 10월 가을 관광 철에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각 어시장 입구에서 한 컵 물회 맛보기를 무료 제공하는 등 수산물 소비 촉진에 온 힘을 쏟을 계획이다.

손병복 군수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견사체계를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소비 촉진 행사를 통해 지역 수산업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손현수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악의적으로 고소당한 교원에게 변호사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악의적 민원에 대응”

경기도 교권보호조례 개정안 마련

오산시의회 “예산 삭감 공개 비난한 체육회장 자진 사퇴하라”

체육회장, 시민의날 행사서 “예산 삭감 시의원을 왜 내빈 소개하나” 발언



성명 발표하는 성길용 오산시의장(기운데)

경기 오산시의회가 ‘시민의날 체육회’ 행사장에서 체육회 예산 삭감을 이유로 시의회를 공개 비판한 체육회장을 대

해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산시의회 의원 전원은 11일 기자회견을 차지해 “권병규 오산시체육회장은

24만 시민의 화합과 축제의 마당이 되어야 할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서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비하했다”며 “체육회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권 체육회장은 제35회 시민의날 체육대회 행사장에서 대회사 도중 “체육회 예산을 삭감한 오산시의원들을 왜 내빈으로 소개하나”, “체육회 예산을 깎은 행위는 체육인을 무시하는 처사다”, “시의원들은 선거철만 인사하고 다닌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권 회장이 언급한 ‘예산 삭감’은 의회가 이번 추경 예산안에 상정된 체육회 예산 3건 가운데 워크숍 행사 예산 1천100만원

을 삐감한 것을 의미한다.

의원들은 예산 삭감에 대해 “의회는 올해 본예산에서 체육회 1년 운영예산 약 8억원을 의결했고,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에서는 체육인의 밤 행사(1천300만원)와 워크숍이 중복된 사업이라고 판단해 워크숍 예산만 삐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들이 모인 공개된 장소에서 의회를 비난하고 흡집을 낸 것은 향후 체육회 예산의 결과 과정에서 시의회에 압력을 행사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체육회장이 사퇴하지 않을 시 시민이 부여한 모든 권리와 책임을 밸류해 합당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길용 시의장은 “체육회장은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차 적법한 예산 심사 과정에 참여한 시의원까지 비하하는 도를 넘은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 김재욱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에 대응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교권보호조례)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제6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관리)가 신설됐다.

이 조항은 “교장은 소속학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의도적·반복적 민원에 대해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서 언급된 법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 법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증거 수집을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녹음 전화 운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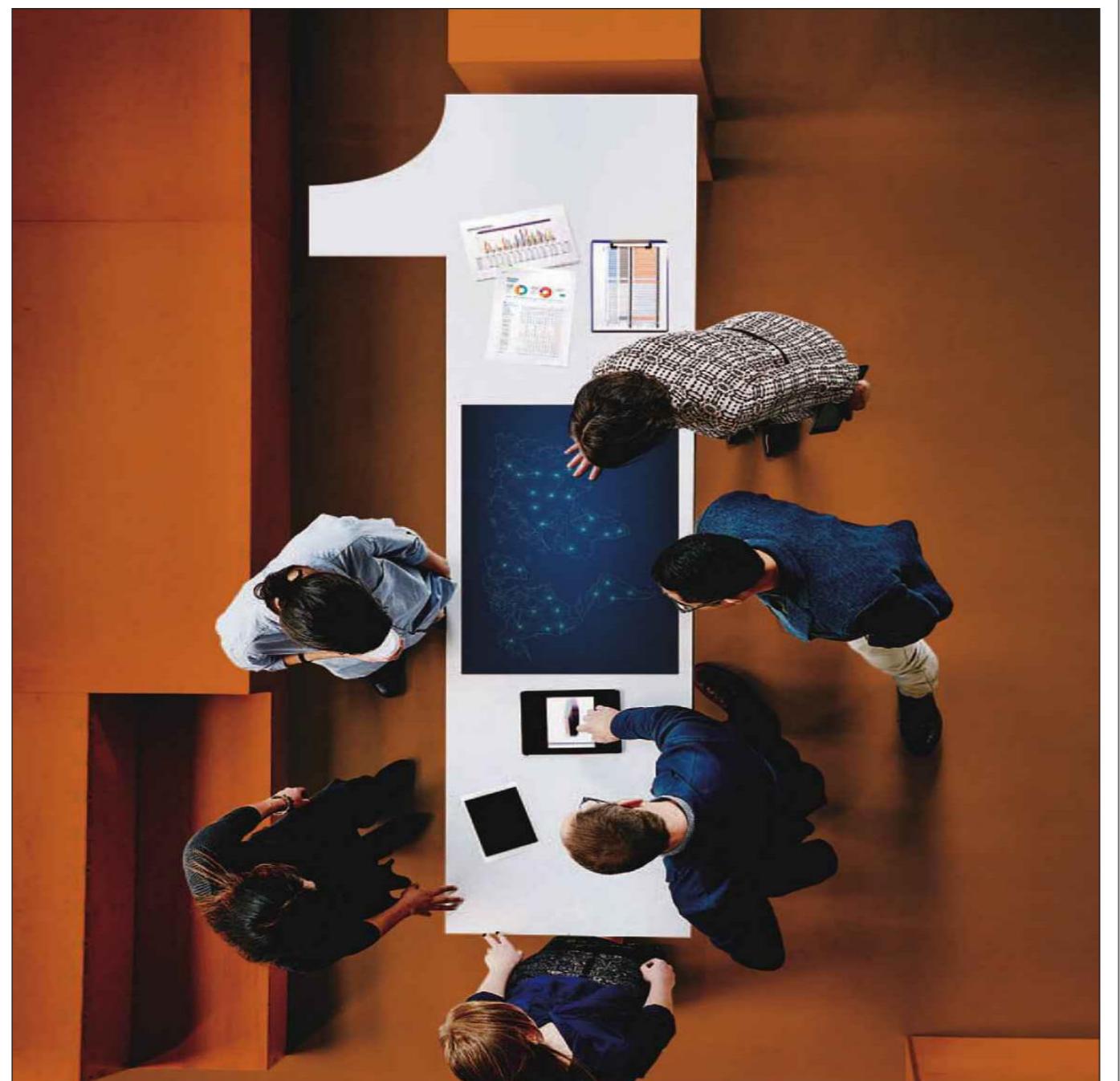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이 바로 서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이 일원화된 민원 창구와 함께 녹음·녹화 시설 등을 갖춘 상담 및 민원 전용 별도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분리교육도 새롭게 명시됐다. 신설된 제5조의3(학생 분리교육)은 “교장은 법령과 학칙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적합한 교육을 위해 교실로부터 분리 및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이다. 아울러 “학생은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학습자로서 윤리의식을 확립해야 한다”는 제4조의2(학생 및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도 추가됐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이 바로 서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남유정 기자



퇴직연금 1위, 이유가 있습니다

글로벌 ETF를 비롯한 앞선 상품들, 엄격한 리스크 관리,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1위의 차이를 누리세요.

퇴직연금 적립금 증권업계 1위 (2022년 말 기준) | 퇴직연금 자산 20조원 돌파 (2023년 1분기말 기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원리금 보장 및 비보증형 합계금액 공시기준

[미래에셋증권 연금자산관리센터 1588-5577] ■ 투자자는 금융상품(퇴직연금)에 대하여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기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DC/IRP]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기업한 경우,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기업한 경우, 합침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DB]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과세기간 및 과세 방법은 합침 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작 계약기간 만료 전 종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의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DC 자산관리 수수료(후취) 연 0.10%~0.28%, 운용관리수수료(후취) 연 0.10%~0.30% 적립금 별 상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IRP 자산관리 수수료(후취) 연 0.1% / 운용관리수수료(후취) 1억 미만: 연 0.2%, 1억 이상~3억 미만: 연 0.18%, 3억 이상: 연 0.15% (장기계약 할인 및 디렉트계약의 수수료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1989호 (2023.06.01~2024.05.31)

글로벌 투자 파트너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100가지 재미 선사합니다” 내달 6~15일 청원생명축제 개최



청주시는 10월 6~15일 오창읍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서 지역 대표 농축산물 축제인 2023 청원생명축제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청주에 재미를, 청원생명에 건강을 담

다’를 주제로 한 올해 축제에서는 100여 개의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100여개 농가가 고구마, 표고버섯, 사과, 한우고기 등 우수농축산물을 선보인다.

입장권을 구매하면 축제 기간 문의문 화재단지와 청주동물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입장권을 가지고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를 방문하면 2천원 할인 혜택을 받는다.

장민호, 김연자 등이 출연하는 개막 축하공연 및 불꽃놀이를 시작으로 청주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전국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청원생명가요제, 히든싱어 콘서트, DJ 페스티벌, ‘불타는 미스 미스터리’ 등 공연이 10일간 이어진다.

시는 가족과 함께 즐기는 승마 체험, 동물 먹이 주기, ‘황금 소로리볍씨를 찾아라’, 대형 플레이스 퍼포먼스 등 연령별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체험행사도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렸다.

입장권은 일반권 5천원으로 단일화됐다. 현금 성격의 입장권은 그 금액만큼 축제장에서 우수 농축산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입장권을 구매하면 축제 기간 문의문 화재단지와 청주동물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입장권을 가지고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를 방문하면 2천원 할인 혜택을 받는다.

/ 이은정 기자

이민지, 크로거 퀸시티 챔피언십 연장 우승…LPGA 통산 9승

3위로 마친 중국 인뤄닝, 세계랭킹 1위 예약…이미향 공동 5위

호주 교포 이민지(27)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크로거 퀸시티 챔피언십(총상금 200만 달러)에서 시즌 첫 우승을 차지했다. 이민지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켄우드CC(파72·6천548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더블 보기 하나를 끓어 1언더파 71타를 쳤다.

최종합계 16언더파 272타로 칠리 헐(잉글랜드)과 동타를 이룬 이민지는 이어진 연장전 두 번째 홀에서 버디로 승리하며 정상에 올랐다. 우승 상금은 30만 달러(약 4억원)다.

이민지는 지난해 6월 메이저대회 US 여자오픈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승수를 추가하며 LPGA 통산 9승을 달성했다.

2021년 메이저대회 예비양 챔피언십에서 우승하고, 지난해 US여자오픈을 포함해 2승을 거뒀던 이민지는 이번 시즌엔 두 차례 톱10에 그치다가 15번째 출전 대회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이민지는 현재 출산 휴가 중인 박인비와 오래 호흡을 맞췄던 캐디 브래드 비처(호주)와 이번 우승을 합작했다.



우승 트로피 든 이민지

이민지는 “내가 지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었으나 그렇지 않았다. 동타가 꽤 이어졌다. ‘끝까지 하자, 어디서 끝나는지 보자’는 생각으로 포기하지 않고 모든 샷에 최선을 다했고 연장전 승리로 이어져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아시아에서 이어질 대회와 (시즌 최종전인)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을 앞두고 남은 시즌의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싶었다. 이제 목표를 다시 세우고 아시아 대회와 투어 챔피언십을 잘 치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역전극을 노린 헐은 LPGA 투어 통산 3승을 다음 기회로 미뤘다.

중국의 2002년생 신예 인뤄닝은 이날 5타를 줄이며 이번 대회를 3위(14언더파 274타)로 마쳐 세계랭킹 2위에서 1위로 진입이다.

이미향은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출전을 목표로 두고 있었는데,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CME글로브 포

인트 60위까지 출전하는 최종전)까지도 노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최혜진이 앤드리아 리(미국) 등과 공동 11위(10언더파 278타)에 자리했고, 신

지은과 유해란은 공동 23위(6언더파 282

타), 리디아 고(뉴질랜드)는 공동 41위(3 언더파 285타)로 마쳤다.

지난해 LPGA 투어에 데뷔한 인뤄닝은

올해 4월 디오 임플란트 LA 오픈과 6월 메이저대회 여자 PGA 챔피언십을 제패한 것을 비롯해 이번 시즌 7차례 톱10에 이름을 올리며 꾸준한 기량을 보인 끝에 세계 1위까지 올랐다. 특히 그는 최근 LPGA 투어 3개 대회에 모두 3위에 자리했다.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 앤리 유잉(미국)은 4위(12언더파 276타)에 올랐다.

한국 선수 중에 이미향이 최종합계 11 언더파 277타, 공동 5위로 가장 좋은 성적을 남겼다. 이미향의 이번 시즌 첫 톱10 진입이다.

이미향은 “2018년에 이은 통산 2번째 월드컵 파이널 우승을 이뤄냈다.

월드컵 파이널은 월드컵 1~4차 대회 리커버·컵파운드 남녀 개인전 우승자와 월드컵 개인전 성적으로 집계되는 월드컵 랭킹 포인트 상위 3명, 개최국 우수선수 1 명 등이 모여 ‘왕중왕’을 가리는 대회다.

종목별 동일 국가 선수의 출전은 2명으로 제한된다.

강채영과 함께 출전한 임시현(한국체대)은 준결승에서 발렌시아에게 진 뒤 3위 결정전에서 케이시 코풀드(미국)에게 6-0(28-25 25-24 28-25)으로 승리해 동메달을 획득했다.

남자부에서는 이우석(코오롱)이 결승에서 마르쿠스 달메이다(브라질)에게 4-6(28-29 29-30 30-29 29-27 28-29)으로 져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김우진(청주시청)은 8강전에서 디라즈 봄마데바라(인도)에게 2-6(29-28 28-30 26-29)으로 져 입상에 실패했다.

컵파운드에서는 여자부에 조수아(현대 모비스)가 한국 선수로 유일하게 출전, 3위 결정전에서 다프네 칸테로(멕시코)에게 142-144로 아깝게 졌다.

월드컵 일정을 모두 마친 국가대표 선수들은 열흘여 앞으로 다가온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준비를 이어간다.

/ 이경준 기자

강채영, 양궁 월드컵 파이널 우승…올해 ‘왕중왕’ 등극



조코비치, US오픈 테니스 우승…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 타이기록

오픈 시대 이후 첫 24회 우승…올해 호주오픈·프랑스오픈·US오픈 석권



노바크 조코비치(2위·세르비아)가 US 오픈 테니스 대회(총상금 6천500만 달러·약 857억6천만원) 정상에 올랐다.

조코비치는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의 빌리진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남자 단식 결승에서 닐 메드베데프(3위·러시아)를 3시간 16 분 만에 3-0(6-3 7-6(7-5) 6-3)으로 물

리쳤다. 2018년 이후 5년 만에 US오픈 정상에 복귀한 조코비치는 개인 통산 24번째 메이저 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조코비치는 남녀 선수를 통틀어 마거릿 코트(은퇴·호주)가 세운 메이저 대회 단식 최다 우승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조코비치와 코트가 24번씩 우승했고, 세리나 윌리엄스(은퇴·미국)가 23회로 그다음이다. 다만 프로 선수들의 메이저 대회 출전이 허용된 1968년 이후에만 24회 우승한 것은 조코비치가 유일하다. 코트는 1968년 이후로는 메이저 단식 우승이 11번이다.

남자 단식으로 범위를 좁히면 조코비치 다음으로는 라파엘 나달(스페인)이 22

차례 우승했다. 조코비치는 올해 4대 메이저 대회 가운데 호주오픈, 프랑스오픈, US오픈을 훙쓸었고, 월드컵에서만 준우승했다. 이번 US오픈 우승 상금은 300만 달러(40억1천만원)다.

조코비치가 한 해에 3개 메이저 대회를 훙쓴 것은 2011년과 2015년, 2021년에 이어 올해가 네 번째다.

특히 조코비치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아 출전하지 못했던 호주오픈과 US오픈에서 올해 패권을 탈환하며 자존심을 세웠다.

만일 조코비치가 지난해 호주오픈, US오픈에 나갔더라면 메이저 우승 횟수는 지금보다 더 많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1987년 5월생인 조코비치는 1968년 이후 US오픈 남자 단식 최고령 우승 기록도 세웠다.

/ 김민호 기자

대한하키협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포상금 5천만원



대한하키협회는 올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낼 경우 포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대한하키협회는 이날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정식을 개최하고 금메달 포상금 5천만원씩을 남녀 대표팀에 약속했다.

이상현 대한하키협회장은 선수단에 격려금을 전달하고 “훈련에 매진해온 선수단에 감사드리며 그간 갚고닦은 기량을

유감 없이 발휘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남녀 국가대표 선수단과 협회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남자 하기는 2006년 도하, 여자는 2014년 인천 대회가 최근 아시안게임 우승 사례다.

직전 대회인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 때는 여자 4위, 남자 5위로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 신승진 기자

LG HelloVision

Hello rental

지금 사고 나눠내자!

온라인 최저가보다
최대 72% 저렴하게!

새로운 가전 구매 트렌드

LG헬로비전 헬로렌탈



※ 최저가 비교기준 : 22년 3월 N사 쇼핑 기준, 삼성TV(KU50UA7050FXKR), KB제휴카드 전월 30만원 사용에 따른 할인 적용 시

※ 월 렌탈료는 품목 및 할부 기간에 따라 상의

상담문의 1855-1082





우리금융그룹



- 📍 재난재해 지원 긴급 출동
- 📍 우리동네 선한가게 지원
- 📍 농어촌 학생 진로탐색 멘토링
- 📍 생명의 숲 조성
- 📍 울진 숲길 산불피해지 복구
- ⋮

우리금융그룹,
왜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다 우리잖아요~”

우리금융그룹은 ‘우리 모두’를 위해
101가지 사업과 우리금융미래재단 출범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디든 함께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가 간다 ➔

World EXPO 2030
BUSAN, KOREA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우리자산운용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우리프라이빗에쿼티자산운용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